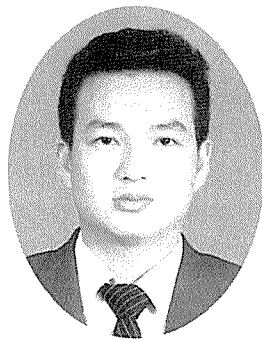


특집

'95년 결산

최고와 완전 추구한 유공



민 철 환
〈유공 홍보실 대리〉

한 해의 끝에 서서

몇개월전 유공사보 원고 件으로 만나게 된 유공담당 ISO심사관은 유공만큼 좋은 회사를 자신의 경우에는 거의 보지 못했고, 어느새 유공FAN이 되기까지 하였다며 유공에 대한 커다란 찬사를 내게 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추진력을 넘어서 강력하면서도 계획적인 추진력이 돋보이고, 고도로 합리적인 완벽한 품질경영체제를 갖고 있으며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유공은 매우 훌륭한 회사라고 거듭거듭 말을 하였다.

유공에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 새삼 자랑스러워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한해의 끝이 서서히 드러나 보이는 지금, 1995년의 유공의 지나온 발걸음을 바라 보는 중에도 내가 유공의 한 사람임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변화가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올해에 유공은 석유사업(유회유포함), 화학사업, 연구개발, 글로벌리제이션, 환경(환경사업포함), 생산, 안전, 정보통신, 사업다각화, 사회EVENT 그리고 인력/조직등 모든 분야에서 새롭고 풍성한 실적을 일구어냈다.

경영의 풍년

연구개발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대덕기술원 준공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3년여동안 총 1,100억원을 투자하여 17만 5

천평의 부지에 연구동 3개동, 실증실험동 4개동 등 14개동이 1차로 완공되어 지난 5월 준공식이 열린 유공대덕기술원은 유공 기술개발의 주축으로서 R&D 제2의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사업영역은 물론 신에너지 분야, 첨단 고분자 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세계적 수준의 R&D 기지이다.

유공의 기술개발은 이외에도 중국 *Sinopec Tech*와 의 공동연구 협약 체결 및 러시아 연구소와의 기술협력 추진 등으로 세계화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도 하였다.

석유사업(유회유사업 포함)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진 석유사업에서도 유공은 마켓리더로서의 저력을 마음껏 과시하였다. 업계최초로 BC카드와 제휴하여 '93년에 탄생했던 유공BC카드가 올해 들어 회원수 100만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 세계 일류수준의 연구개발 기지인 유공 대덕기술원의 준공식이 5월 25일 있었다.



▲ 유공의 중유를 실고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웨이산후 號

7월부터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품질서비스센터 이동차량이라는 독특하고도 과학적인 품질 애프터서비스기법을 동원 전국 주유소 등을 다니며 고객들에게 품질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주유소에서 농협쌀을 판매함으로써 농민을 돕게 됨과 아울러 주유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도 시작하였다.

북한 경수로 협상과 관련하여 KEDO에서 북한에 제공하게 된 중유 1차분에 대한 공급권을 부여 받은 유공의 중유를 실은 유조선이 50주년 광복절에 즈음하여 북한으로 향할 때의 감격은 특별한 것이었다. 비단 부두에서 배를 띄워 보내는 유공인에게만이 아니라, TV를 통해 이 장면을 바라본 모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33년간의 기술 KNOW-HOW는 「엔크린」이라는 고순도 휘발유와 「ZIC」라는 한차원 높은 윤활유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세계 유수의 엔진실험기관들이 선진국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이라고 입증해준 청정제를 국내최초로 개발 이를 첨가한 엔크린은 뛰어난 품질로 10월이후

소비자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최첨단 초고점도지수 윤활유기유, YUBASE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윤활유 「ZIC」는 21C를 뜻하는 말로 엔진보호와 연비향상 성능 등 뛰어난 윤활성능을 갖는 윤활유로 소비자 및 업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 수입 없이 자체 기술력과 경험으로 창출해 낸 두 신제품은 유공이 현재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향후 세계 일류수준의 테크노 피아를 빠른 시간내에 구현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유공 석유사업은 동해저유소를 완공시키고 PG부동액을 본격 출시하는 등 활발한 한 해를 보냈다.

환경

업계 최상의 탈황시설 및 종합폐수처리시설, 소각 시설, 전기 집진기 등 완벽한 환경설비 그리고 「Q-BOD 미터」外 다종의 수준 높은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공이 금년에 「경유매연후처리장치」라는 획기적인 환경상품을 상업화하면서 일류수준의 환경능

력을 과시하였으며, 국내최초로 재생연료사업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환경경영체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을 한해 환경에 있어서도 역시 풍성한 결실이 맺어졌음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화학사업

'94년 중반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금년들어 상승세가 지속된 석유화학경기와 더불어, 유공 화학사업은 작년도 1조원 매출 달성에 이어 금년에도 매출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화학설비 증설사업도 꾸준히 벌이고 있다.

현재 연산 35만톤의 파라자일렌(PX), 30만톤의 스티렌모노모(SM)생산시설을 '96년말까지 연산 65만톤, 50만톤으로 각각 증설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며, 약 1천억원을 투자해 연산 40만톤 규모인 제2에틸렌 제조시설을 연산 52만톤으로 늘려 '96년말이면 제1 에틸렌제조시설을 포함, 총 70만톤의 에틸렌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증설사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한편, 저독성 용제 「수펙솔 브」시판과 세계최초의 복합 차단성 필름 개발도 잇을 수 없는 성과로 기억할 만하다.

▼ 경유매연 후처리 장치 개발

각종 사회적 EVENT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및 문화행사도 활발히 추진하여 5월 가정의 달에는 고객사은대잔치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음악축제 등을 벌인 바 있으며, 국민학생들에게 환경사랑의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 매년 열고 있는 「환경사랑글모음진」도 성황리에 마쳤고, 11월에는 패밀리콘서

트와 「엔크린컵 MB(코리아 그랑프리 제7전) 즉, 자동차경주대회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남부 가뭄지역에 식수돕기,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 구호물품 전달 등 어려운 곳에 따뜻한 손길을 뻗쳐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 울산시에 선경그룹의 명의로 1천억짜리 대공원을 기부채납하기로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와 나라를 위한 유공의 노력을 실감하게 했다.

최고와 완전을 추구해 온 한 해

이외에 제4 등경유탈황시설 가동, 제주지사의 가스 안전관련 대통령 표창수상 서아프리카 지역5개 광구 동시 참여, 공업진흥청 주관 경영품질백선 선정등 유공이 한해동안 펼친 각종 경영성과는 나열할 것이 매우 많기만 하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와 완전」을 추구하자는 金恒德 부회장의 신년사대로 1995년 올해년 한해는 유공이 한걸 더 살찌워진 해였음을 기억하게 된다. ☺

